

교육감 권한대행 국외출장 논란 확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의 밀라노 동계올림픽 국외출장을 둘러싼 예산 집행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는 외부기관에 의한 객관적 감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며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와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국외출장과 관련한 예산 집행 및 절차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당시 출장 인원은 5명이었지만 개막식과 경기 공연 관람은 7명 기준으로 이뤄졌으며, 공식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공연 관람 비용까지 예산에 반영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 수행 인원이 아닌 외부 인력이 포함됐을 가능성과 여행사 수수료가 중복 반영된 의혹도 제기했다.

특히 실제 관라자가 누구인지, 예산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핵심 증빙자료인 티켓 사본과 외부 인력 관련 확인 자료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도교육청이 예산 사용의 부적절성을 인정하고 출장비 환수 방안을 밝힌 것만으로는 사인을 마무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순 환수 조치를 넘어 예산 집행 경위와 실제 사용 대상에 대한 철저한 검증, 관련자 책임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 시민단체, “외부기관 감사·책임 규명해야”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장 예산 집행 의혹 제기

감사 절차의 객관성 문제도 제기됐다. 도 감사위원회와 교육부에 제출한 감사 요구 및 민원이 모두 도교육청으로 이첩되면서 사실상 ‘셀프 감사’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당사자가 교육감 권한대행인 상황에서 내부 감사만으로 공정한 조사가 가능하겠느냐”

라며 감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최근 도교육청이 종합충량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각종 청렴 대책을 발표한 상황에서, 이번 사안은 선연적 수준에 머문 청렴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외부기관에 의한 객

관적이고 독립적인 감사 실시 △예산 집행 내역과 실제 사용 대량 전면 공개 △감사 결과에 따른 관련자 책임 조치 이행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기자회견 직후 감사원 감사 청구도 즉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출장 논란이 아니라 공공 사용의 기본적인 검증과 책임 문제”라며 “형식적인 수습이 아니라 명확한 사실 확인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와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의 이번 국외출장과 관련한 예산 집행 및 절차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원어민 화상영어

토킹클래스 1기 모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사회취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도 원어민 화상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원어민 화상영어 토크 클래스 1기 참가 신청을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원어민 강사의 화상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영어학습 역량을 높이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 과정은 총 4기로 구성되며, 각 기수마다 9주 동안 수업이 진행된다. 특히 수업 시작 전 수준별 레벨 평가를 실시해 학습자 맞춤형 수업으로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영어 학습 흥미와 자신감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참여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된다. 수업은 원어민 강사 1명과 학생 3명이 함께하는 소규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 2회, 회당 30분씩 운영된다.

1기 운영 기간은 오는 4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다. 신청은 10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후 8시까지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개별 접수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전주대 박물관, 2026 K-뮤지엄

지역 순회전시·투어 지원 선정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한국박물관 협회가 주관하는 2026년 K-뮤지엄 지역 순회전시 및 투어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최대 1억2,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주대 박물관은 타 지역 연계 순회전과 관광 프로그램 부문에 모두 선정되어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특별전은 ‘자연에 선조들의 지혜를 담다 - 일상, 행복, 바람 아로새기다’를 주제로 열린다. 오는 5월 목포 신선아트센터를 시작으로, 10월에는 전주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특별전을 VR(가상현실) 기반의 온라인 전시로도 구축해 누구나 어디서든 전북의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지선 앞두고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확립

전북교육청, 집중신고기간 운영키로... 특정후보 지지·SNS ‘좋아요’도 금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확립을 위해 오는 6월 3일까지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선거는 2026년 6월 3일 실시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8일 공직기강 확립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번 집중신고 기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은 물론 공·사립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특정 정당 가입이나 활동,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 관여 행위, 소속 직원이거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압적 홍보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특정 후보 지지 또는 반대 의사 표명, 단순 ‘좋아요’ 클릭 등 온라인상 정치적 의사 표현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선거 관련 가짜뉴스 게시 및 유표 북부 위반에 따른 공직기강 해이, 업무 지연과 소극행정 등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나 공직기강 해이 행위를 발견한 도민과 교직원은

전북교육청 누리집 내 감사관 부서의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신고 기간 중 접수된 제보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과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직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실전형 시뮬레이션으로 학교 내 감염병 발생 대응력 강화

전북교육청, 학교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역량 강화 연수 진행

내달 말까지 교육지원청별

모의훈련... 도내 학교로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내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실전형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8일 오후 전주박물관 대강당에서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와 지역 대표 교사 110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학교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및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감염병 발생 시 학교의 대응력 강화와 가장 상황 훈련을 통한 위기 관리 능력 제고 유관기관 간 소통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기존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전문가 강연과 실무 시뮬레이션을 결합한 실전형 훈련으로 운영됐다. 평상시에도 실제 상황과 같은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현장감 있는 훈련에 중점을 뒀다.

이날 강연에서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이주형 교수가 전북 지역 감염병 현황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설명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8일 오후 전주박물관 대강당에서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와 지역 대표 교사 110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학교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및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다. 이어 김금화 이리동신초 교사의 진행으로 전북교육청이 개발한 영상에 활용한 인플루엔자 대응 모의훈련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가상의 감염병 위기 상황 속에서 각각의 역할을 직접 수행한 뒤 대응 과정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보완점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훈련에 참여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오는 5월 말까지 교육지원청별 모의훈련을 마무리하고, 이후 도내 모든 학교가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시 감염

병 대응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는 방침이다.

임영근 문체부건강과장은 “감염병 대응은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빠르게 소통하고 조치하느냐가 핵심”이라며 “실전 같은 반복 훈련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 역량을 확보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maeil.com

수소연료전지산업 국제표준·정책 공유

우석대, 22일 국제포럼 개최

우석대학교가 급성정하는 수소경제 시대에 발맞춰 글로벌 협력 기회를 넓히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우석대학교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전주캠퍼스 대학 본관 23층 완주·우석 전망대 W-SKY23에서 ‘제9회 우석 수소연료전지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수소 및 연료전지 산업의 국제표준과 정책, 기술 동향을 한자리에서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국내외 주요 전문가들이 참석해 글로벌 수소산업의 방향성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로랑 앙토니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TE) 사무총장과 홈메이 중국과학원 교수 등 해외 전문가를 비롯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연료전지 기술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이흥기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부총장 등 주요 인사가 대거 참여한다.

특히 이흥기 산학협력부총장은 지난 2023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연료전지 기술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돼 현재 연료전지 분야 국제표준화를 이끌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도 관련 정책과 기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주요 발표에서는 그린수소 인증의 상호 인정과 국제표준화의 역할, 중국의 수소·연료전지 산업



발전 현황, 국내 에너지 정책 및 기술 트렌드, 연료전지 상용화와 국제표준 간 연계성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이흥기 의장이 좌장을 맡아 각국 전문가들과 함께 연료전지 기술개발과 연구개발(R&D) 현황, 산업 확산 전략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계획이다.

이흥기 의장은 “수소연료전지 산업의 경쟁력은 국제표준 선점에 달려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각국의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글로벌 표준화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우석대학교 전주캠퍼스 R&E사업단과 완주수소연구원, 전북일보가 공동 주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완주군 국가기술표준원, H2Korea 등이 주최한다. /오상근 기자

전북대, 여성과학기술인재 키운다

R-WeSET 호남·제주권역 사업단 참여대학으로 신규 합류

J-리더스 프로그램 운영... 이공계 여학생 대상 팀원 모집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SET, 이사장 문애리)의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사업(R-WeSET 2.0) 호남·제주권역 사업단에 참여대학으로 신규 합류하며, 지역 기반 여성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본격 나선다.

호남·제주권역 R-WeSET 사업단은 제주대학교를 주관대학으로, 국립목포대학교와 전북대학교가 위탁대학으로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전북대의 참여로 권역 내 교육·진로 지원 체계가 전북 지역까지 확장되며 여성 이공계 인재 양성 생태계가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 간 이공계 교육 및 진로 기회 격차 해소를 목표로 추진된다. WSET과 사업단은 지난 2월 협약 체결을 계기로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연간 약 5,500명의 호남·제주권역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고등학생에게는 공학 체험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이공계 대학생에게는 전공 역량 강화와 진로 설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특히 전북대는 지역 핵심 산업인 AI

및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기관과 연계한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실무형 인재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사업책임자인 민지호 교수(전북대 화학공학부)는 “전북대학교의 참여를 통해 호남·제주권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과 산업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교육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대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차세대 여성 과학기술 리더 양성을 위한 ‘J-Leaders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하고, 오는 4월 24일까지 전북대 이공계 학과 여학생(학부 2~4학년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활동 팀원을 모집한다.

선발된 참여자는 전공 심화 연구 및 실험 프로젝트 수행, 교내 실험실 연계 실무 체험, 산업 현장 탐방 및 연구 결과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팀별 자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활동 지원금과 학회 참가비, 등록비 등이 지원되며, 전공 역량 강화와 진로 설계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축 기회도 제공한다. /김재훈 기자

전북교육청, 행정연구회 ‘행나래’ 운영

학교 행정업무 인계인수 표준 모델 개발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행정 업무의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인계인수 표준안 마련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연구회 ‘행나래’를 운영하고, 올해 주요 과제 중 학교 행정업무 인계인수 표준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나래’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 14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로, 지난 2013년부터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개선과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행정직 직원의 휴직이나 정년 조정, 인사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공백과 단절 문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학교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일겠다는 계획이다.

‘행나래’는 연간 일정과 반복 업무, 업무 추진 시 유의사항, 주요 현안 및 사업 관리 등 핵심 실무 내용을 담은 표준 양식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